

# 개화기 ‘남녀동등’ 담론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계몽의 시각

## Points of Views on Women in Enlightenment Discourse of the Equality of Sex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전미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Jun, Mi-Kyung

---

### 〈Abstract〉

This paper serves to analyze the points of views on women in enlightenment discourse of the equality of sex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1860-1910). The discourses of newspapers that are the text of this study have been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The major conclusions that are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nlightenment discourse of the equality of sexes criticized women's inferior status in family and in society.

Second, the discourse, however, claimed the women's rights with the view of national interests, which meant that the ultimate goal of the discourse was not the enhancement of women's rights. Wome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were recognized as a member of a nation while they should also role as a member of it. The discourse also claimed that the equality of sexes could be realized through education and emphasized especially women's role as a mother who should raise a member of a nation.

Third, enlightenment discourse would not understand the women's every day lives that resulted in demanding women more roles in the name of civilization.

---

▲ 주요어(Key Words) : 개화기(enlightenment period), 남녀동등(equality of sexes), 여성(women), 여성교육(women education), 국가(nation)

#### 1. 들어가는 말

관습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의 행동에 일반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회적 규범의 하나로서 비교적 긴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고정관념을 의미한다. 관습이 오랜 자기수정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세련된 모습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회에 있어서 윤리 또는 도덕으로서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다(김태길 외, 1989:43). 그러나 사회 제반의 변화는 당연히 존중되었던 혹은 묵인되었던 관습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다시 새로운 윤리적 잣대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 연구는 개화기<sup>1)</sup> 남녀동

등의 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남존여비적 일상은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윤리적 잣대로 조망되면서 타파해야 할 관습이 되었고, 이는 새로운 관습이 생성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계몽의 주체들이 생산했던 남녀동등의 담론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인식의 바탕 위에서 여성이 ‘발견됨’을 의미한다. 즉 남녀동등의 담론은 과거의 것과 전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사유하는 한편, ‘문명’의 이름으로 새로운 규율들을 여성에게 강요하였다. 따라서 남녀동등의 주장에서 읽을 수 있는 ‘근대’의 개시는 단

---

\* 주저자 : 전미경(E-mail : preba@chollian.net)

1)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이질적인 외부세력에 의해 조선사회의

동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860년에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 보고자 한다.

순히 남존여비란 낡은 개념을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이 확립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근대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완전하게 일상화되어 우리가 오늘날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들로부터 그 속에 내재해있는 독특한 역사적 권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선이다(장석만, 1997, 김진균·정근식, 1997;23에서 재인용). 이렇게 볼 때 서구와 전통이 혼재(混在)된 오늘날의 일상의 첫시발점은 개화기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계몽의 세력들에 의한 '여성'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여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화기 계몽의 주체들이 특히 '남녀동등'의 담론에서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은 남존여비적 일상의 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당시의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와 가정 안에서의 열악한 여성지위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담론은 여성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생성되는 새로운 인식의 틀은 기존의 여성역할을 새롭게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의 경험에서는 도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여기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개화기 계몽의 시선에 의해 '발견'된 여성이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읽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의 연구내용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남녀동등을 향한 계몽의 열망을 확인하고자, 당대 무성했던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둘째, 남녀동등의 담론에서 '계몽'의 시선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즉 계몽담론의 담지자들이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권리를 보장받은 여성을 통해 얻고자 했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몽담론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당대의 민족지를 중심으로 하여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표적인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sup>2)</sup>는 '시사평론'이란 고정란에 다른 신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계몽가사를 발표하였는데<sup>3)</sup> 이 계몽가사는 당시의 계몽담론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계몽담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미숙, 1999:124-129). 따라서 이 연구는 앞서의 민족지에 실린 논설을 비롯하여 특히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논설과 계몽가사를 연구의 텍스트로 분석하였다.<sup>4)</sup> 그 밖의 자료로 당대의 잡지와 신소설을 참고로 하였다.

## II. 계몽의 지표로서의 '남녀동등'

'우리보다 먼저 문명 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가 동등권이 있는지라 ... 학문과 지식이 사나이와 못치 아닌 한 고로 권리도 일반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황성신문, 1898.9.8.). 이처럼 문명한 나라의 풍속인 남녀동등은 '아름다운' 것으로 비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은 곧 조선의 남존여비적 일상을 야만과 미개로 정의 내리고 있었다. 과부개가금지, 축첩제, 조혼과 같은 관습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상 역시 '계몽'의 잣대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제 한 국가의 계몽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되었던 '남녀동등' 담론의 일면을 읽어보자.

개화기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같은' 남녀를 차등하는 풍속은 '이상한 풍속'이 되었다(독립신문, 1899.4.26.). 내외법으로 여성은 '어려서부터 백발노인이 되어 죽기까지 규중에 갇혀 밖에 있는 강산풍물을 임의로 구경도 못하게 출입이 엄금되어(독립신문, 1899.9.21.) '남의 집 하인 외에는 얼굴을 들고 일월을 보지 못하게 하고 비록 집안의 일가친척이라도 오륙 촌만 되면 서로 얼굴을 상대치 못하는 법'이라는 여성의 일상은 '문명'을 지향하는 조선에서 설 곳이 잃게 된다. 따라서 여자가 '학문을 알면 방탕하여 못쓴다 하고 간신히 국문자이나 가르치'거나 '혹 누가 여자의 교육일'을 말하거나 '여자의 얼굴을 들어 내놓고 출입한다는 일'을 말하면 무슨 큰 변괴로 알면서 그 말하는 자를 오랑캐로 지목(제국신문, 1907.5.29.)하는

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이러한 노력은 발간 초기부터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리듬이 있는 운율체의 계몽담론을 가사의 형태로 발화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개화기 대표적인 민족지에 실린 계몽가사의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장성진, 1992:10).

발표매체	가사	발표매체	가사
독립신문	29	제국신문	106
대한매일신보	700	황성신문	12
경향신문	25	공립신보	11
신한민보	7	만세보	6
매일신문	2		

4) 강명관·고미숙(2000)은 대한매일신보에 우리말로 된 시가를 『근대계몽기 시가 자료집』, (성균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란 세권의 자료집으로 묶고 있다.

2)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검열이 심하여 신문이 일본의 침략정책을 비판할 자유를 빼앗기고 있을 때 영국인 Ernest Thomas Bethell(裴設)을 발행인으로 양기탁을 총무로 하여 1904년 7월에 창간되었다. 발행인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인의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신문사 정문에 '日人不可入'이라는 방을 내걸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자유로이 공격하였다(이기백, 1990:420-421). 이러한 특성으로 대한매일신보는 당대 다른 민족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선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당면과제를 자유롭게 제시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계몽의식

것이 당시의 혼란 일상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계도(啓導)의 '대상'이 되었다.

심하다 대한 사람의 여인을 학대하는 악습이요 죄인을 옥안에 가둔 것 같이 부녀를 제 집안에 가두어두고 대문 밖에를 못 나가게 할 뿐 아니라 말소리도 크게 못하게 하며 그 아내가 집안 일이라도 조금 간섭을 한다든지 그 남편의 행사가 불미한 것을 만약 바른 말로 일깨우면 그 남편이 제 잡담하고 대책하는 말이 암암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불편한 법이요 여인의 소리가 대문 밖에 나가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라 하여 입이 있어도 능히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발이 있어도 능히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눈이 있어도 능히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게 하니 ... (독립신문, 1899.5.29.)

남존여비적 일상아래에서의 여성의 삶은 곧 조선 제일의 악습이 되었다. 계몽담론은 조선의 여성에 대한 압제로 말미암아 여성은 '말도 크게 못하게 하며 걸음도 급히 가지 못'하게 하여 '성한 사람을 아주 병신'을 만든다고 자탄하였다(매일신문, 1898.8.13.). 또 담론은 여자를 '쥘석'과 같은 천한 물건에 비하여 귀히 보지 않는 것, 그리하여 여성을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노예로 대접'(독립신문, 1898.9.13.)하는 일상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처럼 남녀가 동등한 사회의 구현에 대한 요구는 남존여비적 일상에 대한 격렬한 비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남녀동등의 담론은 개화기의 여성을 '심수한 규방내에 수천년 쇠하여 남자와 동등되는 자격을 상실하고 가족중열등'(황성신문, 1909.8.6.)한 존재로 묘사하는 한편, 이러한 여성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조선에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부인계(婦人界)'의 '신사조(新思潮)'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문명한 시대로 접어든 조선에 있어 이러한 사조는 남존여비적 일상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새 준거틀로서의 남녀동등은 규중에 '침복(蟄伏)'해 있던 여성에게 남자와 같은 '동등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는 다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학문과 동등지식과 동등기예와 동등사업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08.8.1.).

그러므로 '내외법'에도 어김없이 '남녀동등'이란 계몽의 여과망에 의해 타파되어야 할 관습이 되었다. 즉 내외법은 여성의 삶을 감옥살이로 만든 악습이 되었다

오백년래 익은 풍속 골수 중에 깊이 젖어 만사개혁이 시대에 어리석은 저 인물은 모다 구습 뿐이로다 ... 부녀모양 불썩이면 능라주의 치레하고 삼복 중에 출입해도 장옷소매 팔날팔날 눈 내놓고 얼굴 가려 내외지별 분명하니 저 구습이 그저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8.7.7.)

개화기에 조선 오백년의 역사가 만든 풍속은 '구습'이 되었다. 즉 만사가 개혁하는 이 시대에 구습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인물'이나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었다. 다시 말해 여자가 삼복 더위의 출입입에도 불구하고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중용하는 내외지별(內外之別)이 바로 '구습' 즉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축첩제와 과부개가의 담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축첩제와 과부개가금지의 가족제도는 개화기에 대표적인 악습으로 지목 받고 있었는데, 이 제도 역시 그 타파의 당위성은 '남녀동등'의 새로운 준거틀에 있었다. 즉 축첩제의 담론에서는 '남녀부부는 그 권리가 균등하다'는 전제 아래 남성의 '유처취첩(有妻取妾)'의 풍습을 비난하고 있었고, 이것은 '남녀동등'의 준거로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윤리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미경, 2001a:73). 또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남녀평등의 잣대가 적용되었는데, 남편의 '개가'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내의 개가는 천히 여기는 일상에 대한 비난(독립신문 1896.4.21.) 역시 남녀별 이중잣대의 모순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미경, 2001b:24.).

이와 같이 남녀동등의 담론은 남녀는 균등한 '상제의 자녀'이기에 차별이 없으며 따라서 그 직분상에도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황성신문, 1908.5.9.), '문명교화(文明敎化)니 교화국(敎化國)이니 반개국(半開國)이니 야만(野蠻)이니 하는 것은 여자를 동등대우(同等待遇)와 노예대우에 있다(『명월정』, 『한국신소설전집』 6권, p.177.)고 하였다. 이러한 담론에서 여성에 대한 동등권의 부여 정도는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척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무엇을 위한 남녀동등인가

지금까지 계몽의 담론 안에서 무수히 강조되었던 '남녀동등'의 주장을 읽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계몽담론은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담론을 창출하고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남녀동등 담론의 실체를 만나보자.

#### 1. '국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녀동등

개화기 계몽담론의 지향점은 오직 '문명한 국가'에 있었다. 담론은 '국가'를 자신들의 담론의 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 둔 채 조선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남존여비적 일상'도 예외가 아니었기에, 남녀동등 역시 '국가의 경쟁력'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망되었다. 즉 조선의 문명개화, 부국강병을 통해 당대 조선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인식했던 계몽의 주체자들은 '남녀동등' 역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좀더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몽의 담지자들의 시대인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담론에서 '국가'에 대한 이들의 열정을 살펴보자.

돌아왔네 돌아왔네 활동시대가 돌아왔네 / 첫가라쉬  
 쿵쳐 놓고 / 한숨 눈물 두루 치고 사방을 돌아보니 /  
 수운은 참담하고 살기는 등등일세 / 시랑같은 무리들이  
 잡아먹기 내기하네 / 강한 자는 입을 벌려 약한 자를  
 잡아 먹고 / 개인 자는 이를 갈며 자는 자를 잡아 먹네  
 / 애고머니 이것 보게 / 형님 형님 일어나소 큰일나고  
 큰일났소 / 우리들은 잠을 들어 세상 소식 몰랐더니 /  
 우리 집에 누가 와서 횡행장난 하는구나 / 인명도 살해  
 하며 재물도 탈취하네 / 거조가 해망하고 수모가 막심  
 일세 / 이것 보게 기막힌다 (대한매일신보, 1907.8.22.)

이상의 계몽담론은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인 조선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은 마치 시랑(豺狼)같은 무리들의 '조선 잡아먹기 내기'라고 부를 정도로 살기 등등한 것이었기에 담론은 조선을 둘러싼 시대 상황을 '강한 자는 입을 벌려 약한 자를 잡아먹고, 개인 자는 이를 갈며 자는 자를 잡아먹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강한 자의 '인명 살해'와 '재물 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힘'만이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기에 '힘'을 위해서는 조선의 모든 것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비는 '전일구습 다 버리고 신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요약되었고, 이것은 곧 '서구'의 것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신식' 실천의 당위성은 '애국'에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8.2.11.). '애국'은 조선인 모두에게 강조되었고, 곧 조선의 모든 사람들을 '국민'으로 명명하면서 '국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당대 조선의 당면과제였던 '자주독립'은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 일국(一國)의 국민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화기에 '국가'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국가'에 대한 열망은 당시 수많은 역사·전기물의 소설을 낳았는데, 특히 프랑스 혁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롤랑부인의 전기를 엮은 '라란부인전'의 발문에서는 여성과 관계된 계몽담론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번역자는 나라마다의 '스승'이자 사람마다의 '어미'가 되는 '여자 중 영웅'인 라란부인의 전기를 출간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러니 우리 대한 동포도 진실로 능히 그 일동일정  
 (一動一靜)과 일언일사(一言一事)를 다 본받아 그 지개<sup>5)</sup>

를 품고 그 사업을 행치 못하면 어찌 가히 애국하는 지사라 하며 어찌 가히 국민의 의무라 하리오?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진실로 능히 그 의무를 다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가히 사람이라 이를지니, 저 금수와 벌레를 볼지라도 각기 그 성품대로 의무를 행하거든 하물며 사람이 되거소야 금수와 벌레만도 못하리오? 그런즉 사람의 마땅히 행할 의무라 하는 것은 무엇인고? 가로되 제 나라를 사랑함이라. ("라란부인전(羅蘭婦人傳) 발문", 민족문학사연구소 편역, 2000:90)

'애국'은 국민의 의무였고, 이 의무 수행은 곧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행위가 되었다. 즉 '나라를 사랑함'은 '사람의 마땅히 행할 의무'가 되었다. 이처럼 계몽의 생산자들은 국가적 힘의 원천을 국민 즉 '인민'의 계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나라의 인민 되어 애국하는 일편정신 / 머리 속에  
 넣어두고 주야간에 잊지 말고 / 그 때에 죽는 것이 옳은  
 줄로 생각하면 / 나 혼자만 죽지 말고 고기값을 하고  
 죽세 / 직업을 할 때라도 활동하여 힘써 하세 / 이 지  
 경에 이른 놈이 무엇을 헤일손가 / 부질 없이는 활동들  
 말소 (대한매일신보, 1907.8.23.)

조선의 인민은 국가에 대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개인적 사건 역시 국가와 연계된 것이었을 때만이 의미 있는 것이었기에 인간으로서의 '고기 값'은 애국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늙은 부인 젊은 처자 장옷 벗고 활동하여 / 예배당에  
 간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 시세 알고 학문 배워 나  
 먹을 일 내가 하소 / 남편의 덕 믿지 말고 공것 먹을  
 생각 말소 (대한매일신보, 1907.8.22.)

이와 같이 국민의 그물망 안으로 여성이 포용되는 가운데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여성에게 요구되고 있었고,<sup>6)</sup> 그것은 새로운 역할 부여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일면을 '여인'을 화두로 삼고 있는 다음의 담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 양잠학교 성립하니 여자사무 발달이라 물리학을 공부하고 경제지술 강구할 때 외국제도 모방하여 신세계가 되었으니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여자교육 실시하니 디지[지리] 역사 능통이라 몇 백년을 간헐다가 활발정신 얻었은즉 침선방적 뿐 아니라

5) 지개(志概): 지기(志氣)와 동의어. 어떤 일을 이루려는 의지와 기개.

6) 개화기 국민으로 거듭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논의는 전미경 (2001c) pp.96-98 참조.

- 무슨 학문 없을손가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안방 속에 들어앉아 의식에만 종사다가 자유권을 얻었으니 대장부와 동등이라 신학문만 성취하면 무슨 사업 못할손가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우리 낭군 졸업하니 모학교에 우등이라 신공기를 마실려고 구미열국 유람하니 좋은 비단 한필 짜서 새옷 지어 보내겠네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산골처녀 가련하다 문밖일도 모르면서 정구지역<sup>7)</sup> 팔몰아야 수족까지 다 터지니 국축<sup>8)</sup>하게 일평생을 토실 속에 늙는구나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주사청루 주렴 속에 오는 손을 접대하며 희롱하고 단장기로 무정세월 허송하니 무슨 사상 있을소냐 이팔청춘 잠깐이라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깊고 깊은 궁궐 안에 늙어가는 저 궁녀는 실가지락<sup>9)</sup> 전혀 없이 한평생을 갇혀 앉아 수심으로 지냈으니 무슨 사업 하였을까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부귀가의 여인들은 금의옥식 싸여 앉아 십지부동 편하기로 인간고초 다 모르고 제 팔자만 자랑하나 창씨고씨<sup>10)</sup> 행락할까 이 시대가 어느 때뇨
- 간교하다 저 무당은 우부우맹 유인할 제 화와 복을 안다 하며 여간 전재 탈취하니 이런 일을 생각하면 꿈께 날이 묘연하다 이 시대가 어느 때뇨 (대한매일신보, 1908.7.1.)

이상의 담론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조망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여성상을 만드는 근간이 바로 '국가'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각 연마다 후렴구로 덧붙이고 있는 '이시대가 어느 때뇨'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일련의 주장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이 시대'는 우승열패, 약육강식, 생존경쟁의 논리만이 삶의 유일한 생존방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때뇨'라는 말은 작금의 조선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조선의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지는 '여성'을 전과 매우 다른 모습, '국가'를 염두에 둔 '국민'으로 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이 바로 이 담론에서 말하고 있는 각양(各樣)의 여성, 즉 '안방' 속에 들어앉아 있는 부인, '랑군'이 있는 아내, 산골의 '처녀', '기생', '궁녀', 부귀가의 '여인', '무당'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규율'을 포함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는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담론은 규문 안의 공간 안에서 음식지절과 침선방적의 여자

유행(女子有行)에만 종사하던 과거 여성이 개화기 '남녀동등'의 새로운 준거에 의하여 '교육'이 대상이 되어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유권'을 부여받아 '대장부'와 동등이 되었다고 하고 있었다. 또한 담론은 '신학문'을 성취하여 '무슨 사업' 즉 국가의 이익과 관계된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여성이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리 아래에서 신공기를 마시려고 구미열강을 유람하는 남편을 위해 비단 옷을 지어 보내는 부인은 개화기 바람직한 국민, 바람직한 여성의 정형이 될과 동시에 규문 안에서 '문 밖'일도 모른 채, 수족(手足)이 다 터질 정도로 전통적인 여공(女工)에 전념하는 산골처녀는 '정구지역'에 '팔몰'하면서 일평생을 '토실'속에서 늙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가운데 담론은 제 몸단장에 세월을 허송하는 기생을 한심한 인생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궁녀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자신의 편한 팔자만을 자랑하는 부귀가(富貴家)의 여인들과 우부우맹(愚婦愚氓)을 현혹시키는 무당의 삶은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계몽담론 안에서 여성에 대한 동등권의 부여 즉 여성의 자유는 '국가의 부강함'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가 생기면 인민이 생기고 인민이 생기면 자유가 있나니 ... 이천만 동포 중에 여자도 반분자이온데 반분자가 자유를 잃고 인격을 잃고 자의 자식을 모르고 자유로 출입도 못하고 제발 제손도 자유로 쓰지 못하였으니 어찌 나라이 부국이 되리오 슬프다 우리 여자 동포는 오늘부터 번연이 깨우쳐 제 자유를 잃지 말고 남자와 같이 활동하여 국가분자된 자격을 잃지 말고 자의 자식할 능력을 얻어서 ... (리강자(1908). "녀자의 자유", 『녀자지남』, 1권 1호, pp.28-29.)

이처럼 남녀동등의 결과인 여성의 자유는 '국가 분자된 자격'을 위한 '활동'안에서만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하여 창출되었던 계몽담론은 여성을 포함하여 조선인 모두를 '국민'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몽의 노력에 의하여 여성은 스스로 국민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국채보상운동에서의 여성의 활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서의 여성의 활약은 이러한 국민된 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계몽담론은 '조선 부인들이 이때를 당하여 국민된 의무를 행하여 봅시다'(제국신문, 1907.4.1.)라고 외치면서 여성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이때 이 운동의 동참만으로도 여성은 '국민'으로서의 의무 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위급한 시대에 여성은 '부인이라 칭탁(稱託)<sup>11)</sup>하고 안연부동(晏然不

7) 정구지역(井口之役): 물 길고 절구질 하는 일  
 8) 국축(國縮): 황송하여 몸을 굽힘.  
 9) 실가지락(室家之樂): 부부 사이의 화락.  
 10) 창씨고씨: 창씨(創氏)와 고씨(高氏)가 옛 중국에서 세습적으로 곳집을 맞아 봤다는데서 유래된 말로 사물이 오래도록 잘 변천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11) 칭탁(稱託): 어떠하다고 평계를 댐.

動)하는 것은 '마음도 부끄러'울 뿐 아니라 '천지신명 두렵도다'(제국신문, 119907.3.25.)라고 하면서 국민된 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죄악'으로 규정하였다. '여자가 다만 의식지공(衣食之功)만 알고 우로지택(雨露之澤)<sup>12)</sup>을 일본도 알지 못하오면 어찌 이천만 동포에 의무가 된다 하오리까'(제국신문, 1907.4.5.)라고 하면서 패물의 폐지를 통해 이천만 동포의 의무를 다하자고 하였다. 쌀을 씻기 전 그 한 숟가락씩을 모으고,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패물을 폐지하고, 혹은 손가락에 끼인 반지를 빼어 내는 등 국채를 갚기 위한 여성의 행동은 새롭게 부여된 '국민'으로서의 막연한 상(像)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듯이 국채를 갚고 보면 국권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여자의 힘을 세상에 전파하여 남녀동등권을 찾을 것이니'(대한매일신보, 1907.4.23.)라고 말하는 담론은 국채보상운동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것은 곧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남녀동등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반면, 계몽담론은 '여성계'의 계몽이라는 이름아래 '남녀동등권'을 부여할 수 없는 여성을 걸러내고 있었다. 즉 국가적 이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여성은 곧 '국민'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들 여성을 척결의 '대상'으로 단정지었다. 이러한 측면은 당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기생'을 비롯한 매음녀에 대한 비난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어떤 옥문 열고보니 간음하던 부녀들을 의복 벗겨 세워놓고 목수들의 나무켜듯 무수 귀졸 마주 서서 큰 톱으로 쪼개는데 피가 흘러 낭자하니 한국 안의 모모음녀 죽은 후에 여기왔고 (대한매일신보, 1908.12.20.)

염라국의 지옥을 묘사하는 이 담론을 통하여 당대 '음녀'들에 대한 계몽적 질타가 어느 정도 강렬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은 기생, 매음녀, 음녀 등의 여성을 '여성계'에 발붙일 수 없는 타도의 대상으로 비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하디 천한' 이들까지도 '국민'의 일원으로 수렴하고자 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한 예로, 담론은 연희장의 '기생'들에게 '저도 국민 일본자라 애국심은 일반'이라고 하면서 논개, 춘향, 월향, 황진이 의 절개와 충절을 본받으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즉 담론은 이들 모두는 '충렬사조 특이함이 창기 중에 제일이라 너희들도 방탕구습 어서 바빠 다 바리고 저런 행적 본을 받아 나라 일에 성공하고 동포에게 생색하면 상등여자'(대한매일신보, 1909.8.2)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기생까지도 '충렬(忠烈)'을 통해 '상등여자'가 될 수 있다는 담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모든 여성이 '애국'을 통해 상등여자 즉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당대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계몽담론은 여성이 국민의 한 분자임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가운데, 조선 이천만 국민가운데 그 반수에 해당하는 일 천만 여성의 힘을 요구하고 있었다. 조선의 여성이 '이천만 국민 가운데 그 반에 해당하는 일천만'이라는 주장은 당시 흔한 수사였다. 그리고 「자유종」의 설헌도 말하고 있듯이 남자에게만 의뢰하는 일천만 여성의 습성이 작금의 빈약한 국세를 초래한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백짓장도 맞들면 가벼운 것처럼 일천만 여성이 남자의 사업을 도울 때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주장(「자유종」, 『한국신소설전집』 2권, p.146.)은 '여성'에 대한 계몽담론의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2. '여성교육'의 당위성을 위한 남녀동등

개화기의 '국가'는 조선의 모든 것을 그 하위에 둘 수 있는 최고 정점의 위치에 있는 대상이었다(전미경, 2001b:23). 이러한 구도 아래 여성교육, 남녀동등의 새로운 주장은 '여자들을 교육하여 남녀동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강방책'의 일환(대한매일신보, 1907.7.14.)이라는 배치아래 전개되었다. 특히 계몽담론은 여성에게 신교육을 끊임없이 권장하였는데, 이때 여성교육의 실현을 위한 전제적 조건에 해당하는 '남녀동등'의 담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열풍과 같았던 신교육의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구성원을 통하여 조선의 위기감을 타파하고자 했기에 개화인사들은 '교육'을 구국의 열쇠로 여기고 있었다. 당대 '교육'에 대한 열망과 집착은 다음의 담론에서 잘 드러나 있다.

얼시고도 절시고 조리조리 좋시고 / 동포형제야 걱정 마소 살 구멍이 생겼네 / 이 구멍을 모르면 야만멸망을 당하네 / 충군하라도 이리 오고 애국하라도 이리와 / 부국이 되라도 이리오고 부자가 되라도 이리 와 / 공명을 하라도 이리 오고 영웅이 되라도 이리 와 / 단체가 되라도 이리 오고 강병이 되라도 이리 와 / 삼강오륜도 여기 있고 명예권리도 여기 있소 / 남녀동등도 여기 있고 만국동등도 여기 있소 / 세계평화도 여기있고 배외 능력도 여기 있소 / 교제를 하라도 이리 오고 유람을 하라도 이리 와 / 심심하여도 이리 오고 재미보라도 이리 와 / 보은하라도 이리 오고 원수 갚자도 이리 와 / 안락하라도 이리 오고 화목하라도 이리 와 / 설치하라도 이리 오고 압제하라도 이리 와 / 자녀 있거든 이리 보내 살 구멍이 여기로세 / 그 구멍을 모르진데 글자 써 놓고 세여 보소 / 배울 학자가 십삼혈 학교 교자 열세 구멍 / 살 구멍이 이것이니 이 구멍으로 들어 오소 / 나라 위하여 죽으려면 교육에 힘쓰다 죽을지오 / 돈 모와 자손 주지 말고 학교 세워서 사업하소 / 의병형제

12) 우로지택(雨露之澤): 넓고 큰 임금의 은혜.

총부리 돌려 교육않는 자 쏘와 주소 / 누가 교육에 방  
해커든 그 때 일심코 일내세 (대한매일신보, 1907.9.7.)

이상의 담론은 충군, 애국, 부국, 부자, 공명, 영웅, 단  
체(협동), 강병, 삼강오륜, 명예권리, 남녀동등, 만국동등,  
세계평화, 배외(拜外)능력, 교제, 유람 등의 모든 것이 학  
교(學校)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으므로 심심해도, 재미를  
위해서도, 보은과 안락과 화목을 위해서도 학교에 와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 교육은 당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 조선의 '살 구멍'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에의 열정은 여성까지도 교육의 대상  
으로 만들고 있었다.

개화인사 유길준도 『서유견문』의 “여자 대우하는 예  
모”에서 ‘여성을 가르치지 않는 국가는 국력의 반을 소모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국력증진의 방법으로서 여  
성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라의 문명을  
세우는 기초작업으로 강조된 여성교육은 ‘인종’이 경쟁하  
는 시대인 작금의 조선인종의 ‘생존기관’이 되었다(황성신  
문, 1908.5.9.). 조선이 가장 필요로 했던 ‘국력’의 향상이  
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논리는 매우 당연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담론은 여자를 가르치지 않고 내의  
법으로 규중에만 가두어 둔 채 남자만 교육시킨다면 전  
국 인구 이천만 가운데 ‘일천만이 활동할 자’이니 이는 국  
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남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제국신문 1907.10.11.). 이처럼 여성교육의 부재로 ‘우  
리 나라 사람은 한 눈과 한 손과 한 발로 사는 모양인’  
것(제국신문, 1905.4.11.)과 다름없는데, 조선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자를 교육시키면 ‘한 사람의 할 일을 두 사람  
이 할’ 수 있기 때문에(독립신문, 1897.5.18.) 조선이 당면  
한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의 과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  
다는 것이었다.<sup>13)</sup> 따라서 남녀동등과 여성교육을 논하는  
많은 계몽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론은 여성교육을  
통해 남녀동등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혹  
은 여성에게 동등권이 부여되어야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화기 ‘여성교육’의 계몽담론 안  
에는 ‘남녀동등’이 주창되고 있었고, ‘남녀동등’을 주창하  
고 있던 계몽담론 안에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었  
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계몽의 담지자들이 남녀동등과  
여성교육을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로 말할진대 개혁하는 이 시대에 아무쪼록 공  
부하야 동등권을 회복하고 남자들과 병력하야 문명 진  
보 못하고서 유두분면 농라주의 요리조리 모양내고 여  
간패물 잡혀다가 연회장에 판이 나고 (대한매일신보,  
1909.5.8.)

개화기 여성에게 ‘공부’는 당위적인 역할이 되었다. 공  
부는 여성이 ‘동등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여성이 ‘남자들과 병력(並力)’하여 조선의 ‘문명진보’를 성  
취할 수 있는 도구였다. 이처럼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체  
계 즉 ‘여자계’로 분류된 여성에게는 국가를 위한 역할로  
서 공부(공부)가 부여되었고 이때 ‘교육’·‘공부’는 곧 ‘애국’을  
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공부’는 곧 애국과 등가화 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 된다(대한매일신보, 1909.3.20.). 그러  
므로 ‘남녀가 다 같은 인품이라 어찌 사나이만 사람의 권  
을 가지고 여편네는 사람의 권을 가지지 못하리요’라고  
말하고 있는 담론은 바로 ‘교육’을 사람의 권리로 강조하  
였다(독립신문, 1898.1.4.). 그러나 실상 교육은 사람의 권  
리라기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주창된 것이 개화기  
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세상 물정과 학문을 막연히 몰  
랐은즉 어찌 남녀가 동등이 되었으리요.’(독립신문,  
1899.4.26.)라는 주장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남녀동등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남녀동등은 여성이 교육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논리적 근거였으며, 이때 여성교육 역시 ‘한국 사람  
의 마땅히 지킬 국가주의’(대한매일신보, 1909.6.18.)를 위  
한 유용한 수단이었다.

### 3. 국민을 기르는 ‘어머니’를 위한 남녀동등

그렇다면 국가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남녀동등’, 그리고  
남녀동등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여성교육’의 담론은 보  
다 구체적으로 ‘여성을 어떻게 도구화하고자 하였을까’ 즉  
‘계몽담론은 당대 바람직한 여성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  
을까’를 중심으로 당시 담론이 말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  
과 여성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몽담론은 ‘남녀동등’이란 당위성  
을 통하여 여성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여성교육을 통하여 조선의 동량이 될 자녀, 좀더 구체적  
으로 말한다면 ‘남아’를 잘 ‘배양’할 수 있는 ‘어머니’를 양  
산하고자 하였다.

개화기에 자녀의 학교교육은 곧 부모의 의무처럼 규정  
되었기 때문에<sup>14)</sup> ‘아들 딸 낳거든 학교 보내 신학문 공부  
를 시켜보세 / 우리는 농부가 되었으나 아들은 상등인 되  
어보세 / 부모의 직분은 이뿐이지(대한매일신보, 1907.  
8.20.)’라고 노래하는 계몽담론을 찾기도 어렵지 않다.

가르치오 가르치오 어서 바빠 가르치오 나라는 없어  
저도 백성은 살았으니 있는 사업 있는 재주 그릇하게  
말으시오 백성을 교육함은 흥국하는 근본이라 ... 부처  
계 불공함도 자손을 위함이오 명산에 기도함도 자손을  
위함이오 돈을 모(우)려 애를 쓰는 것도 자손을 위한다  
함이러니 ... 우리는 죽더라도 청년을 배양하여 국권을

13) 개화기 ‘여성교육’에 대한 계몽담론의 논의는 전미경(1999), pp.65-68, pp.73-75 참조.

14) 개화기 자녀교육에 대한 ‘새로운 부모됨의 직무’에 대한 논  
의는 전미경(1999), pp.198-200 참조.

회복하고 자주독립 하게되면 산자도 영화롭고 죽은 자도 영화로세 중흥의 일단 정신 교육일관 뿐이로다 (대한매일신보, 1906.1.12-16.)

물론 여기서의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한 신교육을 의미한다. 답론은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전 단계로서 '가정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때 가정교육은 온전히 '어머니'의 소임이었다.

어찌 홀로 사나이만 학문을 배우며 (그) 권으로 말할 지라도 남녀가 다 같은 인품이라 어찌 사나이만 사람의 권을 가지고 여편네는 사람의 권을 가지지 못하리오. ... 여편네의 직무는 세상에 나서 사나이를 가르치라는 것이다. 여편네가 학문이 있게되면 자식을 처음에 배속에 포태하였을 때부터 아홉달을 잘 보호하여 해산한 후로 차차 기르면서 더우고 춥고 주리고 배부르고 가렵고 아픈 것을 때때로 잘 살피어 묘리있게 길러 내어 밤낮 없이 인도하는 말이 남과 싸우지 말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독실히 하라 효제충신으로 행세를 잘하여 세계에 명예를 크게 낳아내라 하며 남의 고모나 누이가 그 조카와 그 아우를 대하여 가르치며 애호하는 범절은 너나 없이 다 아는 바이요 (독립신문, 1898.1.4.)

이상의 답론은 여성이 학문을 배우는 것을 '사람'의 권리로 말함파 동시에 여성의 직무를 '사나이' 즉 '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문이 있는 여성이 얼마나 '아들'을 잘 양육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개화기 여성의 교육은 곧 장차 '모(母)'가 될 '어머니 교육'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장 안에서 당대 이상적인 여성은 자녀를 잘 가르치는 '어머니'로 응집된다.

이처럼 답론은 여성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대한의 후생들에게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인들은 사람의 첫 어사(御使)'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팔구 세가 이르기 전 가정교육이 잘못 되어 그 후의 학교교육을 통해 바로 잡으려 한다 해도 그것은 '애송 버들가지 꾸부러진 것을 불에 쪼여 곧게 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됨의 중요성, 더불어 이러한 어머니를 양성시킬 수 있는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다(독립신문, 1899.4.28.).

물론, 이러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 역시 '국가'와 연계되어 설명되었다. 즉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자녀교육은 국가의 '개명'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영웅'의 행적과 버금가는 일로 설명되었다.

가정교육 하는 걸로 국가정치 개명된다 전일습관 다 바리고 자녀 일반 배양하면 개개영웅 이 아닌가 어화 한국 부녀들아 만만세나 누려보게 (대한매일신보,

1908.8.27.)

따라서 여성은 '남의 모친된 의무'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다. 여자가 되어 자녀교육을 모르는 것은 곧 가도(家道)를 쇠퇴시키는 일이기여 여성의 '어머니됨'은 '국가'의 존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된다. 가정교육을 잘 하면 '충신의사(忠臣義士)'가 많이 나오고 가정교육을 잘못 하면 '역적소인(逆賊小人)'이 허다하기 때문에 '대한 여자 사회'는 '자녀교육'에 분투해야 했다(대한매일신보, 1908.12.3.).

일가의 가족으로 말하면 남자에 책임이 특중한 듯 하나 실상을 보면 여자에 책임이 특중하고 일국을 총거야 공론할지라도 남자에 책임보다 여자의 책임이 특중할지니 어찌하여 여자에 책임이 특중하는고 항상에 남자 책임 말할 것을 여자가 당할 수 없으나 여자는 특별이 하늘로서 주신 책임은 아이낳는 책임이라 여자의 책임중으로서 성현군자 영웅호걸 국무대신 일반국민이다 나오니 이 책임으로 말하면 남자가 어찌 여자를 향하여 천대하며 세상 책임에 귀치 안타 하리오 (양성운 "학설", 『녀자지남』 1권 1호, pp.31-32)

이제 '영웅'을 낳는 아니 '영웅'을 만드는 '어머니'의 손길은 더욱 거룩한 손길이 되었다. 그것은 하늘이 부여한 '책임'이기에 여성에 대한 '천대'와 '세상의 책임이 없다'는 남존여비적 잣대는 그 당위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계몽의 담론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다.

규중부녀 들어보소 남의 가모된 직책이 가장 중대 하건마는 치산법절 범연하고 자질교육 모르다가 가도 점점 쇠퇴하니 제가 제 뺨 치는 게요 (대한매일신보, 1908. 8.23.)

그러므로 계몽담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 한 예로, 한 담론은 '무의무탁 한 부인이 어린 아이 품에 안고 슬픈 눈물 흘리다가 애자(愛子)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번 불러 보니 노래 뜻이 적절하여 듣는 사람 칭찬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노래하고 있었다.

- 금자동아 옥자동아 인생백년 만사중에 충군애국 제일 이라 일신부귀 탐을 내여 매국적이 되지 말고 만고충신 되어 볼까 동기동동 내 아들이아
- 금자동아 옥자동아 하나님이 사람낼 제 의무권리 주셨으니 남의 노래 되지 말고 나의 의무 전력하여 자유권리 찾아 볼까 동기동동 내 아들이아
- 금자동아 옥자동아 사람되어 무식하면 금수들과 일반



으로 천역밖에 할 것 있나 각종학문 공부하여 지식발달 하여 보세 동기동등 내 아들이 ...

- 금자동아 육자동아 경쟁하는 이 시대에 위험한 일 다 피하면 진보할 땅 없느니라 사생존망 불계하고 갈층 보국 하여 볼까 동기동등 내 아들이 (대한매일신보, 1908.9.26.)

바람직한 '어머니'의 역할이 잘 함축되어 있는 이상의 담론은 '한인들이 한인들이 남의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 직책을 잃지 말고, 귀한 자식을 사랑하거든 이 부인을 본 받아라'고 끝맺고 있다. 이처럼 당대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을 나라의 일꾼 즉 영웅으로 길러내는 것이었다.

#### IV. 개화기 '남녀동등' 담론의 한계

개화기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새로운 윤리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대 이질적인 서구문물의 유입은 조선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던 기존의 윤리적 갖대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윤리의 '생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윤리는 ① 인간의 사회성 속에서 연원한 것으로 사회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② 사회와 함께 필연적으로 생긴 규범이며, ③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창조해 낸 당위의 규범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임덕수, 1993:17). 그러므로 인간에게 적절한 행위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을 만들어 내는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가 인간사회에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집단이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길, 1995:27-34).

따라서 이 논고의 초점이 되는 '여성'을 중심으로 볼 때, 당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윤리의식이 '삶의 지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여성의 일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서의 여성윤리가 '삶의 지혜'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윤리 안에 여성 자신의 일상적 경험에서 도출된 여성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윤리가 제시하는 행위 규범이 행위와 서로 걸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녀동등의 윤리의식은 여성의 원만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개화기 '남녀동등'의 담론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당대 남녀동등의 담론은 내외법, 과부개가금지, 축첩제의 관습을 비난하면서 열악한 조선여성의 삶의 개선을 모색하면서 특히 여성에게 규방밖의 세계를 열어주었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

든 여성의 권리는 문명한 '국가'라는 층위에서 논해지고 있었다. 즉 계몽담론은 '국가'를 전면에 내세워 조선의 일상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녀동등 역시 '국가'라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남녀동등의 담론이 진정으로 여성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 안에서 도출되는 여성윤리는 삶의 지혜가 아니라 여성의 또 다른 굴레의 기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 1. 여성에 대한 또 다른 규율로서의 남녀동등

먼저, 열악한 여성지위의 개선을 주창했던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이 '서구'와 '전통'이 혼재된 계몽담론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성을 전과 다른 새로운 윤리적 공간 안에 머물도록 하면서 기존의 윤리적 덕목과 함께 서구의 새로운 규율을 여성의 '덕목'이란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측면을 중심으로 당대 남녀동등 계몽담론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서구의 수용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통적 요소와 새로운 서구적 요소가 같은 시공간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면은 계몽담론에 의해서도 지적되곤 하였다. 낯선 서양의 풍속은 어느 틈에 조선의 일상에 자리잡게 되면서 조선의 풍속과 공존하게 된다. 다음의 담론은 조선과 서구의 '다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실상을 단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잠시 살펴보자. 교제의 예절에 있어서 서양인은 썼던 모자를 벗어 쓰나 동양인은 도로 쓰는 것이 예의이며, 서양인은 부모 거상(居喪) 때 그 복색을 검게 하나 동양인은 회색 입고, 서양인은 두발로 춤을 추나 동양인은 손춤을 추고, 서양인은 글씨 쓸 때 좌로부터 우로 오지만, 동양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고 있다(대한매일신보, 1909.5.22.)고 하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상반된' 풍습은 곧 서양에 대한 이질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개화기 '동서각국 교통'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특히 약소국인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서구의 수용은 급박한 것이었고 따라서 '동과 서의 판이'한 이질적 풍속이 '섞여' 있는 것을 막을 재량은 없었다. 이러한 당시의 실상을 계몽담론은 '개화풍아 한번 불어 동반도를 움직이니 오백여년 오랜 물건 일조간에 돌변이라 변화하는 이 시대에 신구물이 섞였으니 형형색색 저 모양은 얼농세계 되었구나'라고 묘사하였다. 이 담론 역시 태양력과 태음력의 공존, 지전(紙錢)의 신폐(新幣)와 엽전의 구폐(舊幣)의 공존, 양복과 한복의 공존, 그리고 천주와 공자가 공존하는 당시의 일상을 '가관이오'라고 설명할 정도로 개화기 서구와 전통의 공존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9.10.26.). 이러한 서구와 전통의 혼재(混在)는 단적으로 '삼뽕[모자] 밑에 두루마기, 관탕 밑에 구두'의 복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상을 담론은 '신구식이 섞

였으니 형형색색 가관일세'라고 말하고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8.7.4.).

이처럼 전통과 서구가 섞여 있는 상황은 당시의 윤리적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새 것 즉 서구와 옛 것 즉 전통의 윤리적 잣대의 혼거는 이 논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녀동등'의 담론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화기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은 단순히 야만적인 구습적 일상을 문명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개화기 남녀동등의 바탕에는 기존에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음양론과 새롭게 도입되었던 기독교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혼재는 당대 불합리한 여성의 일상을 타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성에게 또 다른 짐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존여비적 잣대를 비난하는 남녀동등의 담론이 어떤 논리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바로 남녀동등 담론이 펼치고 있는 새로운 세계의 지평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먼저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은 남존여비적 사상을 도출시킨 음양론을 새로운 각도로 조망하고 있었다. 담론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나눌 때에 음양의 두 기운이 있어 만물을 환생하였는데, 이 음양의 배필인 '남녀는 비록 다르나 어찌 차등의 분별'(제국신문, 1899.10.14.)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구별로서의 '음양'은 본래 평등적인 개념이기에 남녀간 차별을 규정짓는 잣대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역의 '음양론'이 본시 평등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건곤(乾坤)의 법칙에서 건을 '천(天)-존(尊)-동(動)-귀(貴)-강(剛)-대태(大胎)'에, 곤을 '지(地)-비(卑)-정(靜)-천(賤)-유(柔)-성물(成物)'에 각각 귀속시키고, 이것을 남녀에 대입시켜 남성의 미덕은 강한 것에 여성의 미덕은 유순에 있는 것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백지원, 1994:31-32). 그리고 이러한 주역의 '일음일양지도(一陰一陽之道)'의 원리는 조선시대 남녀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역의 음양론은 계몽담론 안에서 '상보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설명되고 있다. 계몽담론은 남녀우리를 하늘을 상징하는 남자, 땅을 상징하는 여자, 그리고 강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남자, 약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여자의 구별적 잣대를 그대로 포용하면서 동시에 평등의 개념을 강조한 상보적 음양론으로 설명하였다.

대저 남자는 곧 하늘이라 하늘이 순환하여 사시와 삼절은 세차를 좇아 자강하고 여자는 곧 땅이라 땅이 후중하여 동물과 식물을 절차를 좇아 생성한 즉 땅이 만물을 생성하는 효력이 어찌 하늘이 자강하는 공력보다 못하다 하며 하늘이 사시를 자강하는 능력이 어찌 땅이 생성하는 효력보다 더 승하다 하리오 ... 즉 누구서 남자만 유독 유용하고 여자는 한갓 무용하다 말하리오 하늘과 땅이 음기와 양기는 비록 다르나 그 인격은

동등이오 하늘이 자강하는 때에 땅이 생성치 아니하면 동물 식물이 어디로부터 생성하며 남자가 자유 하는 때에 여자는 무용이라 하면 제가치국이 어디로 좇아 완전 하리오 (청해백(1908), "남녀의 동등론", 『녀자지남』 1권 1호, pp.19-23.)

계몽담론은 하늘을 본받은 남성과 땅을 본받은 여성의 기(氣)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유용함은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남녀의 '인격'은 동등하다고 설명하였다. '음양의 권리가 같'다는 전제아래 여성의 '이목과 사지'가 남성과 '똑같은 사람'이기에 그 '영혼도 재주도 남자와 일반이라'(독립신문, 1899.5.26.)라는 주장은 음으로서의 여성과 양으로서의 남성에게 동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人種之生에 有男有女하니 男은 稟乎陽 故로 有剛強之德하며 女는 稟乎陰 故로 有柔順之義라. 以是로 陰陽이 相交하여 成天地之道하며 男女ㅣ 相濟하여 生天地之化는 萬古不易之理라. 以此見之컨데 男女有平等之權은 從可知矣어늘 ... (황성신문, 1900.4.9.)

이와 같이 계몽담론은 전통의 그늘 아래에서 남녀의 동등권은 음양론의 '상호보완적' 성격을 강조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서구,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서구의 문명함을 가져다준 근원으로 조망되었던 기독교의 그늘 아래에서 남녀를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은 존재로 강조하였다.

우리 동양의 풍속은 자고로 여인을 사나이보다 낮게 알아 천리가 사나이는 높고 여인은 낮은 줄로 아니 하나님이 어찌 당초에 남녀로 고하의 분등이 있게 내셨으리요. 우리 나라는 여인을 낮게 아는 까닭으로 천리가 지 잘못 알았도다 (안천장, "부인을 낮게 봄이 불가한 일", 가정잡지 1년 7호, 광무 11년.)

계몽담론은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이 사람을 내심에 남녀가 동등이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란 권위에 기대어 '여자라고 조금도 남자보다 못할 것이 없음은 명백한 일'(녀자지남 1권 1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저 지공무사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내시매 평등의 인격과 평등의 자유와 평등의 복을 갖춰 품부하사 무삼 후박이 없이 내리셨거늘'(대한매일신보, 1908.12.10.)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적 계몽담론은 여성의 평등과 자유의 권리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것 즉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당대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은 '상보적인 음양론'과 기독교의 '천부인권설'이란 인식의 장(場) 위에서 그 당위성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유교적 여성관의 미덕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구적 여성관의 미덕을 수용하고 있는 이러한 점은 궁극적인 '남녀동등'과의 거리를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개화기 남녀동등의 담론의 논거가 되고 있는 음양론과 천부인권설은 당시 전통과 서구의 이중적 준거가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당시 남녀동등의 담론은 서로 이질적인 이 두 논거의 절묘한 혼합을 시도하고 있었다. 담론은 '태초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 적에 일남일녀로 작정하신 것은 음양의 공효가 서로 같음 이오 남녀의 권리가 동등'(제국신문, 1901.1.31.)되기 때문 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음양의 원리로 남녀를 만들었는데 이때 그 음양의 공효(功效)가 같기에 남녀의 권리가 같다는 논리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초에 남녀를 내시매 음양이 서로 배합이 되었으니 음이 없으면 양이 쓸데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쓸데없나니 남녀가 동등이라'(대한그리스도인회보, 48호, 1897.12.29. 김윤성, 2001:63에서 재인용)는 담론 역시 음양의 논리와 천부인권의 논리의 혼합을 잘 대변하고 있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음양의 원리로 남녀 모두에게 '동등'의 인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논리는 남녀동등을 주창하고자 한 계몽담론의 새로운 글쓰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글쓰기는 새로운 논리의 지평을 여는 것이다. 이제 여성의 일상은 서구의 준거와 전통의 준거 모두에 갇히게 된다.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서양의 여성들처럼 활발한 사회적 활동에 매진해야 했다. 이러한 일면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상보적 음양론의 경우, 비록 음과 양이 존비(尊卑)가 아닌 평등의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할지라도 양=하늘=남성, 음=땅=여성이라는 뿌리깊은 연결 고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보적인 음양론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미화하고 여성을 그 역할 안에 가두는 데 사용되고 있다(김윤성, 2001:60-64). 극단적으로 말해 음양론의 인식틀 아래에서 땅으로서의 여성은 하늘의 미덕을 겸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녀동등의 담론이 이러한 음양론에 준거를 두는 한 기존의 여성으로서의 '여성'이란 정형화된 틀을 넘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은 여성교육의 가장 큰 이점으로 여아의 교육이 곧 유능한 아내와 어머니를 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가정내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한 가족의 안녕뿐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윤리규범이었던 '여성=부인. 어머니'이며, '여성=가정인'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미경, 1999:70-73). 다시 말해 상보적 음양론을 바탕으로 한 남녀동등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담론은 여

성의 삶의 영역을 가정이란 사적영역에 묶어두고 있다. 따라서 인식론이 변화하지 않은 남녀동등의 담론은 여성에게 보다 엄격한 여성으로서의 '여성'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계몽담론이 말하고자 하는 '남녀동등'의 목적은 이 담론의 기독교적인 배경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당대 계몽담론이 기독교에 주목한 것은 '저 미국의 독립과 회랍의 독립이 모두 그 인민의 신교력으로 비롯'(대한매일신보, 1905.12.1.)되었기에 작금의 조선의 '한가지 살길은 무엇인고 하면 예수교를 믿는데'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7.31.)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몽담론의 의식은 다음에 잘 응집되어 있다.

원컨대 동포들은 다 구주를 독실히 믿어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량하고 주의 은혜를 감복하여 몸이 죽더라도 어진 사업을 일우며 창생들도 구제할지이다 ... 상제를 대주재로 삼고 기독교로 대원수를 삼고 성신으로 검을 삼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 옹병 있게 앞으로 나아가면 누가 죄를 자복지 아니하며 누가 명을 순종치 아니하리오 지금 예수교로 종교를 삼는 영미법 덕국의 진보된 영광이 어떠하뇨 우리 동포들도 이것을 부러워하거든 그 나라의 승봉하는 종교를 좇을지니라 (대한매일신보, 1908.3.12.)

이상의 담론에서 당대 계몽담론이 '기독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미법덕으로 대표되는 열강의 '진보된 영광'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남녀동등의 서구적 준거로 빌려온 기독교는 '남녀동등'과 같은 여성의 권리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조선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몽의 시각은 서구의 문명함의 바탕이 되는 '기독교'의 수입을 통하여 남녀동등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계몽담론이 주창하고 있는 남녀동등의 궁극적으로 목적은 여성의 삶의 개선이 아니었다. 계몽의 시선이 머물고 있던 지점은 바로 여성의 삶의 변화를 통한 국가의 '강건함' 이었다.

이처럼 하늘이 부여한 여성의 권리 역시 철저하게 '국가'를 위한 것이었기에 이러한 배경 안에서 '여성'의 권리는 오히려 '국익' 안에서만 옹호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여성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근일에 소위 여학생이란 것들은 정작 학문은 아무것도 없고 지례시어서 남녀동등권이니 천부인권이니 하는 말을 주장하여 말괄량이가 되지 아니하면 무뢰 소년과 연극장 출입이나 하는 것을 능사로 아는 것들 뿐인즉'(「안의 성」, 『한국신소설전집』 4권, pp.69-70.)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에게 주어졌던 남녀동등권은 개인적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국가적 활동을 위하여 매진하는 여성에게 내려주는 일종의 보상과 같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계몽담론은 음양론을 바탕으로 유교적 여성관을 여성에게 그대로 강요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천부인권은 가정 밖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구 여성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여성에게 '국가'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였다. 개화기의 암울한 시대를 개척하는데 있어 가정 밖 산업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분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로 강조되는 가운데,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주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는 가정내 여성역할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이러한 여성역할의 중요함에 대한 강조가 여성에게 과도한 역할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화기 여성을 가정인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국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성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과중한 역할부담이 종용되고 있었다(전미경, 1999:80). 따라서 개화기 기존의 음양론을 수용하는 가운데 서구의 천부인권설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은 여성에게 종래의 전통적인 여성윤리 위에 새로운 서구적 여성윤리를 첨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화기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안에서 여성을 위한 '복음'처럼 다가왔던 새로운 여성윤리는 여성에게 과거와는 다른 삶의 양상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였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새로운 윤리의식이 말하고 있는 문명한 '여성됨'이란 이름 아래 여성을 가두는 또 하나의 '벽'이 되었다.

## 2. 여성의 일상이 반영되지 않은 여성의 남녀동등권

여기서는 개화기 새로운 여성윤리가 생성되었으나 그 여성윤리 안에서 도출된 여성의 '권리'에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여성'의 일상을 조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이 부재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대 계몽담론이 말하고 있는 여성의 '권리'는 진정 여성을 위한 '권리'가 될 수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남녀동등' 담론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화기에 '여성'은 조선사회의 주요한 하위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이것은 곧 여성에 대한 계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화인사들은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대표적인 노력으로 순한글체 신문의 발간을 들 수 있다. 당시 표기법의 문제는 문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기도 했다. 어떤 표기를 택하느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였다(권보드래, 2000:136). 따라서 처음부터 순한글체로 발간된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그리고 초기에 국한문혼용체로 발간되다가 1907년 순한글본과 국한문혼용본의 신문을 이중으로 발간한 대한매일신보 모두는 특히 '여성'을 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계몽의 담지자들은 조선사회와 '이

천만 동포' 조선인을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묶는 가운데 '여자계'는 교육계, 학문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재정계, 관리계, 양반계, 소년계, 노동계와 함께 사회의 한 구성범위가 된다(전미경, 2001c:90-91).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회적 분자로 수렴된 여성에게는 분자로서의 역할 즉 '국민'의 자격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일면을 기생에 의한 '한국여성'의 재판을 그리고 있는 다음의 담론에서 확인해보자. 즉 이 담론은 기생 계월향의 재판장이 되고, 논개가 검사가 되고, 춘향이 서기가 되어 '요악한 계집년', '음탕한 화냥년', '매음하는 일녀' 등의 '한국내의 여죄인을 포박'하여 하나 하나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담론은 '의주기생 금선이는 애국심이 간절하여 신학문을 공부하고 신문지를 애독하니 포증장을 내어주어 그 행적을 포양하라'(대한매일신보, 1910.3.3.)고 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금선이는 비록 기생이지만 애국심으로 신학문을 공부하고 신문을 애독하고 있다고 하는 계몽담론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일반 부녀자의 애국적 활동은 기생의 그것보다는 활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계몽담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를 강조하였고, 남녀동등의 담론 역시 '국가'의 범위 안에서 논해지고 있었다. 물론 여성이 학문을 배우는 것은 '나라를 위하느니 집을 위하느니 하여도 제일 긴절하게 말하면 자기의 몸을 위하여 신세를 그르치지 않고자 하는 주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제국신문, 1906.11.16.)라는 주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계몽담론은 여성은 교육을 통해 '남자에게만 의뢰하는 행습'이 사라지고, '여자도 별이가 늘어서 재물이 요족할 것'이기에 여성의 교육은 여성의 자립적 존재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여학교의 실시'는 '문명부강의 기초'가 된다는 말을 잊지 않고 있다(제국신문, 1906.4.11.). 이러한 가운데 담론은 남녀가 동등한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과 같이 돈벌고 학문 있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제국신문, 1906.7.13.)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는 여성 개인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담론은 조선 부인들의 학문이 높아지고 지식이 고양되면 이들은 부인으로서의 스스로의 권리가 남편의 권리와 같다는 것을 지각하게 될 뿐 아니라 '무리한 사나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게 되므로, 학문을 '높이' 배워 부인의 권리를 찾고 더 나아가 '어리석고 무리한 사나이들'을 교육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독립신문, 1896.4.21.). 적어도 남녀동등의 계몽담론안에서 교육을 포함한 여성의 권리는 여성이 가정 밖의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과거의 유교적 여성관에서는 결코 도출될 수 없는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기에 근대적 여성역의 단초라 할 수 있다. 사

실, '신교육' 그 자체는 여성의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남존여비적 일상을 신세한탄조의 '탄식'이나 여자로서의 '숙명'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제도와 모순된 윤리로 직시하고 특히 이러한 인식을 공적담론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근대적'이라 부를만하다. 즉 남존여비적 일상의 모순을 공적영역에서 발화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여성관과는 분명한 경계를 갖는 '근대적 여성의식'라 할 수 있다(전미경, 1999:63-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당시 계몽담론에 수반되어 있는 내부적 모순의 한계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담론의 한계성은 무엇보다도 여성을 말하고 있는 당대의 계몽담론에는 '여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당대의 계몽담론에는 여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여성의 일상이 수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개탄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담론이 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담론이 주창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일상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여성'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변화였기 때문이다. 비록 독립신문이 자신들은 조선의 여성과 같이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친구'라고 자처하면서 '조선 유지각한 여인네들은 당당한 권리를 뺏기지 말고 아무쪼록 학문을 매워 사나이들과 동등'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사나이들이 못하는 사업을 할 도리를 하여 보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고 있다(독립신문, 1896.9.5.).

한편, 개화기 말기로 갈수록 계몽담론에는 서서히 여성의 목소리가 더해지기 시작하였다. 즉 여성 역시 계몽담론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 한 예로, 한 여성 노인은 우리 대한 근본은 황상(皇上)의 적자(嫡子)라 할 수 있는데, '삼천리 봉강 안에 살고 나'는 비록 여성이지만 '우리 황상의 적자'임에 분명하기에 나라에 대한 충의지상에 남녀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당당한 국민으로서의 '대한국 정치와 동포의 명예'를 우려하고 있었다(제국신문, 1900.3.21.). 이러한 여성의 글은 곧 사적영역에만 머무르던 여성이 '신문'등의 매체를 통해 '공적영역'에서의 글쓰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의 글쓰기에는 계몽담론의 시각과 다른 '여성적 시각'이 있었을까. '염랑자'의 글로 발표된 다음의 담론을 통해 이것을 확인해보자. 전국의 '여성계'를 조목조목 비평하는 이 글은 다음의 서두로 시작된다.

우리 대한 전국 안에 여자계를 살펴본즉 몇천년을 간헐다가 개명풍기 들어온 후 여자들도 남자같이 사회학교 종사하며 총명재질 확충하여 개명됨이 가까거늘 구습 그저 못 버리고 폐악한 자 불소하니 한번 비평하

여 불까 (대한매일신보, 1909.8.17.)

이상의 담론은 개명한 풍기(風氣)가 들어오기 전의 조선사회를 감옥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성의 삶을 갇힌 삶으로 묘사하는 것에서부터 당대의 계몽담론과 매우 흡사하다. 더불어 그녀는 여성 역시 남성과 '같이' 사회와 학교에 종사하여 '개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련의 여성의 역할을 제시한 후 그렇지 못하는 여성들을 '구습'을 못 버리는 '폐악한 자'로 단죄한다. 따라서 문명의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여성은 '매음 녀인네', '완고 녀인네', '완패 녀인네', '간교 녀인네', '곰보 녀인네', '완악 녀인네'로 규정지운다.

이상의 여성의 글에서는 여성 스스로를 국가 혹은 사회의 당당한 한 분자로 여기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다'는 의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문에 사회비평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근대적인 여성 의식의 맹아(萌芽)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글을 포함하여 당대 계몽담론에 동참하고 있는 여성의 글쓰기는 엄밀하게 말해 '여성'이 없기에 즉 여성으로서의 주장이 없었기에 여성의 글쓰기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수반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어디까지나 보다 상위의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철저히 계몽의 시선에 감금되어 여성의 역할을 주창하였고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는 여성만이 공유할 수 있는 여성적 삶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계몽의 시각에 포섭된 여성들은 계몽담론보다 더욱 열렬적 애국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여성이 쓴 계몽의 글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이러한 담론 안에 자신의 여성적 체험을 녹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삶과 결들 수밖에 없으며, 여성을 대상화한 계몽담론의 시각과 차별화된 담론을 발화할 수 없게 된다. 여성이 사적영역에서 벗어나 공적영역에서 글쓰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과거에 비교해 볼 때 매우 경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몽담론을 창출한 여성은 국가를 위한 여성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스스로를 계몽의 도구로 강요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여성에게 엄격한 계몽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다.

이처럼 개화기 계몽의 시각 안으로 수렴되었던 여성은 언제나 '타자'였다. 따라서 타자로 머물고 있는 여성은 계몽의 '대상'에 불과하다. 계몽의 시각 안에는 여성의 삶, 여성의 일상에 대한 '읽'이 없었고, 읽이 없었기에 '이해'가 전무하다는 데서 이러한 일면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남녀동등이 여성의 굴레로 지목되었던 남존여비적 윤리의식을 타파할 수 있는 훌륭한 기제가 된다 할지라도 여성이 국가를 위한 '대상'으로 타자화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의 권익을 위한 주장이 될 수 없다.

## V. 맺음말

개화기의 서구의 수용은 전통적인 일면과 대체되는 형식으로 조선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일면 위에 서구적인 일면이 덧붙여지는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가족에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전통성과 근대성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으며, 그 결과 한국가족에는 근대 가족이 본질적으로 갖는 긴장과 딜레마가 더욱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문소정, 2001:35). 따라서 이 연구가 '개화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가족의 이러한 특성이 시작되는 첫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데 있다.

개화기의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당대 주요한 권력세력이었던 계몽의 주체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남녀동등'의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하여 서구의 첫 충들의 결과 달라진 여성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오늘날 '여성'에게 기대되는 많은 당위적 요소들에 대한 탐색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당시의 여성은 수적으로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수'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유교적 잣대에 의하여 규중 안에서의 삶에만 머물도록 강요받았던 '소수자'에 불과하였다. 계몽담론은 이러한 인식틀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었다. 조선의 이천만 인구 중 그 반에 해당하는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당당한 일분자로 조망되었다. 계몽담론은 여성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주창하였다. 기존의 남존여비적 일상에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담론은 여성을 새로운 인식의 장(場) 위로 옮겨놓았다. '남녀동등'이란 새로운 준거는 내외법을 비롯하여 이중적 성윤리로 인한 과부개가금지, 축첩제와 같은 전근대적인 일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제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전근대적인 여성관과의 분명한 경계를 읽을 수 있는 근대적 여성인식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여성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펼치고 있는 남녀동등의 잣대는 '국가'라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국가'라는 시대적 요청에 비켜서는 것은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개화기의 현실이었기에 여성 역시 '국가'라는 인식틀 안에서 정의 내려졌다. 국가적 질서 안에서 여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당대의 계몽담론은 여성의 활동과 그 가능성 역시 그 틀 안에서만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새로운 여성의 권리는 곧 문명인이 되기 위한 새로운 '규율'로 전환된다. 따라서 새롭게 강요되는 문명의 규율은 철저하게 '국가'라는 층위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었기에 여성의 역할은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요약된다. 특히 담론은 장차 국민의 '어머니'가 될 여성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여성을 '어머니'로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가를 위한 '영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남녀동등의 문명함의 혜택에 따른 여성의 규율이었다. 그러므로 여성을 둘러싼 윤리적·제도적 공간은 과거의 비해 훨씬 넓어졌지만 여성은 변함없이 견고한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벽안에서의 여성은 어머니로 아내로 그리고 국민으로 그 본분을 다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벽안의 질서를 따르지 못한 여성은 매음녀, 완고녀, 완패녀, 간교녀, 곱보녀, 완악녀가 되어 '타파'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처럼 담론은 남녀가 동등한 사회의 실현을 말하는 동시에 여성에게 '국가'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을 요구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잣대는 '여성'에게 새로운 규율을 부과하였지만 동시에 이것은 여성의 또 다른 굴레였다. 즉 개화기 처음으로 계몽담론이란 공적영역에서 '여성'이 불려지지만 이 담론 안에서 여성은 국가를 염두에 둔 '대상'으로만 머물 뿐이었다. 또한 남녀동등의 담론은 음양론과 천부인권론 안에서 그 당위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場) 안에 '신구'의 혼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시 '여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계몽담론이 '국가'를 위한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여성, 계몽담론에 동참했던 여성들과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는 여성, 신교육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다수의 여성, 이들은 당시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일상을 어떻게 조망하고 있었을까. 남존여비적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여성들에게서 제기되었던 '여성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러한 여성의 시선이 계몽의 시선과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 있을까. 있다면 교차지점은 어디이고 각각의 시선의 끝이 머무르고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 접수일 : 2001년 10월 19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2월 26일

## 【참고문헌】

- 1차자료
  - 강명관·고미숙편(2000). 근대계몽기 시가 자료집. 1·2·3권. 성균관대학교 대동 문화연구원.
  - 내훈
  - 독립신문
  - 여자지남
  - 대한매일신보
  - 리강자(1908). 녀자의 자유. 녀자치남 1(1).
  - 「명월정」 (한국신소설전집 6권. 율유문화사. 1968.)
  - 매일신문
  - 서유전문
  - 「안의 성」 (한국신소설전집 4권. 율유문화사. 1968.)
  - 양성운 (1908). 학설. 녀자치남 1(1).

- 「자유종」 (한국신소설전집 2권. 을유문화사. 1968.)  
 제국신문  
 청해백(1908). 남녀의 동등론. 여자지남 1(1)  
 황성신문
2. 2차자료
- 고미숙(1999).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화사 연구 14호. 105-131.
- 권보드래(2000).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서울 : 소명출판.
- 김윤성(2001). 여성과 종교에 관한 근대적 담론의 한계와 효과. 한국사회의 근대성과 종교문화. 한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김진균·정근식(1997). 식민지체제와 근대적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 문화과학사.
- 김태길(1995). 한국윤리의 재정립.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김태길·심재룡·이용필(1989). 현대사회와 윤리. 서울 : 박영사.
- 문소정(2001). 한국 가족의 근대성에 대한 성찰. 역사문제연구 소. 전통과 서구의 충돌. 서울 : 역사비평사.
- 민족문화사연구소 편역(2000).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서울 : 소명출판.
- 백지원(1994). 조선시대 가족예속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백(1990). 한국사신론. 서울 : 일조각.
- 임덕수(1993). 국민윤리. 서울: 교문사.
- 장성진(1992).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미경(1999). 개화기 가족윤리의식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미경(2001a).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67-82.
- 전미경(2001b). 개화기 과부개가금지 담론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7-29.
- 전미경(2001c). 개화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시대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 계학회지 6(1). 85-108.